



#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 “지방권력 독점 저지” “참여정부 실정 심판”

### 여야, '5월 광주'서 첫 유세 격돌



여야는 광주 민주화운동기념일이 자 5·3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 일인 18일 '오월 광주'의 한복판에서 일제히 출사표를 던지며 유세전을 점화, 초반 기선잡기에 돌입했다.

여야 지도부는 유세 첫 날부터 '지방권력 독점 저지'와 '현 정권 실정 심판'을 각각 내세우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5·18 정신을 상징하는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 일대에서 앞다투어 첫 유세전을 펼쳐 선거운동의 스타트를 끊었다.

당 지도도상 수세국면에 몰린 열린우리당은 이날 유세에서 '광주가 결단해야 평화민주세력의 대결점이 이뤄진다'며 '광주발(發) 분위기 반전을 적극 시도했다.'

정동영 당의장은 "광주시민의 결

단으로 부패, 수구, 냉전세력을 끌어내릴 힘을 열린우리당에 부여해달라"며 "한나라당의 지방독점을 깨고 전국이 한나라당판으로 되는 것을 저지하는 힘은 민주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에 있다"며 조영택 광주시장 후보 등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호남 맹주' 자리를 놓고 우리당과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심판론'을 제기했다. 박광대 광주시장 후보와 광주지역 5개 구청장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공원에서 진행된 첫 공식 유세에서 한화갑 대표는 "열린우리당은 16개 시·도에서 이길 곳이 하나도 없다"며 "광주정신을 모독한 열린우리당의 버려진머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광주는 단 한표도 뒤서는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양 당은 한화갑 대표의 '민주-한나라 공조'와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부산정권' 발언을 놓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광주에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취약지인 호남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박근혜 대표는 "선거 시작 첫날 첫 거리유세를 광주에서 시작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하고, 내년에 정권을 되찾아와 경제를 살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며 정권심판론을 역설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남대 앞 출정식에서 "민노당을 진보개혁 진영의 대표 선수로 선택해달라"며 "개혁배신세력 열린우리당을 심판하고 한나라당, 민주당의 지역주의·부정부패 정치의 끝을 보여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이날 '군부정권의 후예 한나라당은 광주를 떠나라'며 유세현장을 막고 기습시위를 펼치는 바람에 박근혜 대표가 쫓겨 유세를 마무리하는 등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26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주요 정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5월 영령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리고 있다. /위정기자 jrwi@kwangju.co.kr

## 盧대통령 “집단이기·지역주의 극복”

### 어제 5·18 26돌 기념식...보수단체도 참석

제2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3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정부 인사, 유가족,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헌화·분향에 이어 정수만 유족회장의 5·18 민주화운동 경과보고, 기념공연, 노 대통령의 기념사, 기념노래 합창 등의 순서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아직도 반독재투쟁의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며 "남은 과제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가치를 생활속에 뿌리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러자면 상대를 존중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합의를 이뤄내는 관용의 문화를 키워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의와 집단이기주의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은 또한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며 "그것은 무소불위의 독재시대나 가능했던 일이며, 아직도 권력자의 얼굴만 쳐다보는 그 시대의 낡은 사고가 남아있다면 이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5·18은 다시 반복해서는 안될 불행한 역사이며,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5·18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분출이기도 했지만, 오랜 소외와 차별, 그리고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분열시킨 데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며 "해담은 균형사

회"라고 밝혔다.

기념식을 마친 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박경순 5·18 묘지관리소장의 안내로 묘역을 순례한 후 희생자들의 영정을 모신 유영봉안소로 이동, 분향했다.

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4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민주당 한화갑 대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등 각당 대표 등도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보수성향의 참전 유공자 및 유족단체도 지난해에 이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전남 시·군 지역별로 학생과 시민,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6주년 기념식이 열려 5월 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렸으며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대학과 재·노동계를 중심으로 기념식과 추모 행사가 열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코스피 36P·코스닥 20P 폭락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발하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에 이어 아시아 증시도 동반 급락세를 보이며 '검

은 목요일'이 재연됐다.

미국 소비자물가지표가 월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자 투자자들은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시화된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전세계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18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36.

32포인트(2.59%) 급락한 1,365.15, 코스닥지수는 20.34포인트(3.03%) 추락한 650.90을 기록했다.

다른 아시아 주요 증시도 미국발 인플레이션 쇼크에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220.49포인트(1.35%) 급락한 16,087.18, 대만 가권지수도 82.80(1.16%) 하락한 7,034.03에 장을 마쳤다. 유럽증시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급락했다.

/정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 오늘 최고 150mm 큰비 내린다

광주·전남 호우예비특보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광주·전남에 호우예비특보를 발표했다.

호우예비특보는 12시간 이상·

80mm이상의 비가 예상될 때 발령하는 것으로, 필리핀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태풍 '찬쯔'(CHANCHU)가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되면서 강풍을 동반한 비를 뿌리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

했다.

19일까지 30~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많게는 150mm가 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또 19일 오전에 기해 남해서부 먼바다와 서해남부 모든 해상, 남해서부 앞바다에 풍랑예비특보(초속 14m)를, 광주·전남과 대륙산도·흥도에 강풍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이승배기자 lsb54@

남부대학교

www.nmbu.ac.kr

전남과학대학

www.chunnam.ac.kr

제15회 광일배 직장바둑대회 오늘 마감

문의 062-675-3448 한국기원 남구지부

지방선거 후보 명단

▶ 5면

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논술 공모

접수기간 : 4월 25일 ~ 5월 25일까지

홈페이지: www.kwangju.co.kr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물가정보

http://www.kpi.or.kr

TEL: 1577-7300 FAX: 1577-4802

30대여성 80% 미백을 위해 이것저것 바꿔봤다

2006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대회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오늘 당신의 귀한 밤방울이 대한민국 여성건강을 지키는 힘입니다.

주최: 한국유방건강재단

주관: 대림암

일시: 2006년 5월 28일(일) 8:30

장소: 광주 월드컵 경기장

참가비용: 5km(건강코스), 10km(희망코스)

참가비: 1만원

참가신청: www.pinkmarathon.com

내 가슴엔 핑크리본

※참가비는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되어 유방암 예방에 사용됩니다.

이벤트: 유방재활상담, 유방일류표준진, 가수공연, 어린이사랑대회, 부부사랑상, 경품추첨 등 다량

문의처: (주)대림암 광주지부 (062)231-1700

이번만큼은 후회없이 딥화이트닝

아이오펜 딥화이트닝 인텐시브

기미·잡티, 흉다는 건 다 써 봐도 왜 자꾸 눈에 띈다?

기미·흉다는 불필요하게 많이 생성된 멜라닌이 피부세포들 깊숙이 쌓여있는 상태. 따라서 화이트닝은 겉에서 지워내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을 깨끗이 바꿔주는 딥화이트닝이 중요! 30대 여성들의 80%가 미백화장품을 이것저것 바꿔봤는데, 당장도 미백화장품을 몇 년씩 교체해 본 적이 없다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노란색 기미·잡티를 집중관리해주는 딥화이트닝을 시작해야 할 때다.

Q 미백/화이트닝 제품 사용후 효과에 실망한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44%

Q 미백/화이트닝을 위해 이것저것 바꿔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80%

■ 깊은 피부 속 멜라닌을 연추는 엘라스토퍼- 아이오펜 딥화이트닝 인텐시브

‘엘라스토퍼’는 평균 1/100~1/2의 미백이 트닝 각층 피부 깊이 스며들며 멜라닌에 그루아사아 타지는 아이오세틴의 집중호 이트닝시퀀스- 세표에 니라 최이트닝을 보나 기미·잡티를 없애는 곳까지 세정작용과 피부 속에서 타닌으로 인해 미백작용을 하는 비-타닌유도체 등 미백효능성분이 알파스 투피를 통해 깊숙이 침투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미백이 트닝이 가능하다. 기존-사제품 대비 전체 얼굴은 밝기 180% 증가, 기미·잡티 부위의 색소침착 개선 89% 증가 등의 뚜렷한 변화가 더 깊은 딥화이트닝의 효과를 증명한다. 여성들의 끝없는 미백 욕망을 위해 캐어낸 아이오펜 딥화이트닝 인텐시브 - 한 달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 기미·잡티가 현저하게 깨끗한 기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오펜 화이트닝 딥화이트닝 인텐시브

눈에 보이는 피부과학 - IOPE

www.hueplace.com